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3권 1호(2013년 6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본관 6층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동운, 김명광, 김화수, 이민경, 이희영,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희영(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김일환(성균관대),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University College London), 이규환(대구대), 이기영(부산대), 이동석(Hiroshima University), 이민경(대구대), 이소영(대구대), 이수정(북한대학원대학교),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홍인기(대구대)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3년 제3권 1호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 1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논문

-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 전승훈 1
-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경험에 대한 단일사례 연구 / 이영희 38
- 다문화 인권교육 활동이 초등학교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김경태 · 박남수 74
-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에 관한 연구 / 여은영 · 김화수 94
- 탈북이주민의 문장읽기 역량 특성 / 최미영 · 김화수 118
- 이주 가정 자녀 정책 해외 사례 분석: 방향성과 실제 / 이민경 · 이수정 144

현장탐방

- 이주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 / 이희영 178

서평

- 한국의 다문화 공간(2011, 정병호 외, 현암사) / 손은경 200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 1호를 펴내면서

OECD가 며칠 전(2013. 6. 13) 발간한 <2013 국제이주전망>(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시장 통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OECD 국가들 내 외국인들이 유입국의 복지 혜택을 받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가지는 인식, 즉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입국에서 자국보다 많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누리는 만큼 실제 기여하는 바는 적다는 인식이 잘못된 편견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처럼, 내국인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을 기여자가 아니라 수혜자라고 인식할수록 그 국가는 저개발국들로부터 외국인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편견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국가나 지역의 여러 측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내국인들에 대한 직접 설문 또는 면접 조사에 바탕을 두고 서술된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 및 사회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연구자가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달리 말해,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입국의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긍정적/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사회의 어떤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가(예로, 단순 생산성 증가인가 산업 고도화인가, 기업의 이윤인가 노동의 복지인가), 또는 미치는 영향의 단기적, 중장기적 측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주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신중하고 체계적이어야 할 것이며, 하나의 연구 결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한 국가가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또는 정치적, 윤리적) 압박(예로, 난민)이 있거나 그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즉 저임금 노동자의 부족, 저출산 고령화와 혼인 적령기 인구의 부족 등)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유입국의 국가나 국민들은 이들의 유입을 일단 허용했다면 이들이 유입국에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들을 포괄적 인권을 가진 한 인간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주민임을 인정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이주자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전승훈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국가 전체 총산액 대비 약 1.28%,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총산출대비 1.15%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있음을 의미한다.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의 유발효과를 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높지만, 단순기능인력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전승훈의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납부세금 이상의 공공재와 복지급여를 누려 재정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지적하고 있다.

이영희의 연구,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경험에 대한 단일사례 연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이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 남성이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도박, 혼외 자녀 출생, 배우자의 이혼 요구 등의 피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이상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겪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 방법으로 이

영희의 연구는 국제결혼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처벌, 피해상황에 대한 공적 개입 체계 구축, 이혼 위기자 또는 이혼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김정태·박남수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착에 따라 시행되는 다문화 인권교육이 초등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다문화 인권교육이 초등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능력요인에는 별다른 효과는 없었지만, 평가요인과 활용요인에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문화 인권교육은 초등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수용 태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세부 요인들에 효과적이었지만 특히 개인생활과 취미·오락 생활 등에 더 높은 수용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에도, 이번 호에는 북한 이주자들의 언어 이해 및 구사 능력에 관한 두 편의 연구를 게재하고 있다. 여은영·김화수의 연구는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관용어 이해과제와 반응시간, 관용어 의미해석 오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반 청소년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북한 이주 청소년은 관용어 반응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 명칭 및 일상 명칭을 포함한 관용어에서는 이해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 이주 청소년은 축자적 의미 해석에서 오류가 많았고, 일반 청소년은 그 외 의미 해석에서 오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북한 이주 청소년은 관용어에 대해 낮설게 반응하고 생소한 어휘와 문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이주민의 문장읽기 역량 특성'을 고찰한 최미영·김화수의 연구는 어절의 역량과 문장의 끝 역량을 중심으로 탈북이주민 성인과 경상남도 거주 성인의 말을 비교하고 있다. 연구 결과, 어절의 역량에서 탈북이주민 성인은 전체적으로 어절 단위로 오르내림이 경상남도 거주 성인과 비슷한 굴곡조로 나타났다지만, 주파수 변화 폭에 있어서는 탈북이주민 성인이 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장 끝 역량에서도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우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 논문으로 이민경·이수정의 연구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 가정 자녀 정책을 분석하고, 그 방향성과 실제 현황을 논의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다문화주의를 기조로 하는 북미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동화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중점 분석하였는데, 이 국가들은 이주 가정 자녀들의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돕고, 이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이주 가정 자녀 정책의 방향성으로, 이주 아동·청소년들을 핵심적인 정책 지원 관심사로 가져가되 일반 아동·청소년들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과 같이 가도록 일반 청소년 지원의 틀 속 혹은 연계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 외에, 이희영의 서술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 실태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탐방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손은경의 서평은 정병호 외 공저, 한국의 다문화공간(2011, 현암사)을 읽고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 맞추어 쉽게 소개하고 있다.

2011년 6월 <현대사회와 다문화> 창간호를 편집·출간한 이후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편집·출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술지 등재 제도의 폐지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논문들을 투고해 준 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렵게 노력한 만큼 학술지가 다문화사회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6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